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역량지각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Perceived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상명여자대학교 가정교육과
강 사 이 주 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angmyung Woman's University
Lecturer: Julie Lee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 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Bowlby has proposed that child-mother attachment is important in the child's representation of self. In this study, the child's self-perceived competence wa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child-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40 6-year-olds. Quality of attachment was assessed based on the child's behavior on reunion following a separation, using a system devised by Main and Cassidy. The self-perceived competence was assessed with a pictorial Harter's Scale revised by Julie Lee.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connections between attachment and the self-perceived competence. Specific areas of self-perceptions were related to particular patterns of attachment.

I. 문제제기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는 현재의 영아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후의 아동발달과도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다(Bretherton, 1985). 최근까지 애

착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애착연구자들은 행동수준에 의한 애착의 유형 분류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이후의 유아의 애착을 다루고자 한다.

Bowlby(1969, 1973, 1980)에 의하면 애착대상자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은 유아기에 형성되며 이는 아동 자신의 자아를 포함하여 세상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아동, 청년과 성인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들(George, Kaplan & Main, 1984; Kobak & Sceery, 1988; Main & Goldwyn, 1984)은 인간은 애착대상자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며 이는 지속적으로 그의 행동과 의미있는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Bowlby의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Bowlby(1973,1980)는 애착 대상자에 대한 내적 표상모델은 자아의 내적 작동모델과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주장했다. 아동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므로, 애착 대상자와의 경험은 자아에 대한 정보의 원천으로 매우 중요하다. Bowlby는 그의 임상적 경험을 통하여 아동의 요구가 가치있게 받아들여 지고 위안이 주어지면 아동은 자신을 가치있고 특별하게 느끼며, 그와는 반대로, 아동의 요구가 무시되거나 거부되면 아동은 자신을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것을 매우 잘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Bowlby의 사고를 정교화시킨 Sroufe와 Fleeson(1986)도 자아에 대한 아동의 초기학습은 주로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 지는데, 아동은 애착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애착 대상자의 내적 표상요인들을 자아에 통합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애착대상자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과 자아의 내적 작동모델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과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애착대상자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에 관한 연구는 전형적으로 Ainthworth의 낮선상황 실험연구에 의존해 왔다. Ainthworth(1983)는 낮선 상황에서 영아가 부모와 재결합시에 보이는 행동은 영아의 부모에 대한 표상모델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inthworth의 낮선 상황 측정은 단지 영아에게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애착과 자아와의 관계는 중단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애착과 자아와의 관계는 첫째, 애착의 질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일때, 둘째, 초기 애착의 질은 이후에 변화될 가능성에 관계없이 나중의 아동의 기능에 영향을 줄 만

큼 영아가 민감기로 특성화될 수 있을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아기이후의 아동의 애착을 적절히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다행히 Main과 Cassidy(1988)에 의해 유아기 이후의 애착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 애착과 자아간의 동시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Bowlby(1979)의 연구에서 자아의 표상모델 개념은 현재의 “자아상(self-image)” 또는 “자아존중(self-esteem)”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자아존중의 분화된 개념으로써의 역량지각 연구는 1982년 Harter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후 Stipek(1985)과 Cause(1987)의 연구에 의해 영역별 역량지각 개념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최근에는 역량지각 개념이 기존의 자아 개념이나 자아존중과 같은 총체적으로 규정된 개념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개념, 자아존중과 같은 총체적 개념의 자아평가개념에서 진일보된 개념으로서의 역량지각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과 역량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한다.

II. 관련연구 고찰

1. 역량지각

인간은 성숙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또래 등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량에 대해 지각하게 된다. 즉, 자신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기존의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몇 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단일 차원의 구인으로 볼 것인가 또는 다차원적 성격의 자아평가로 간주할 것이냐이다. 즉 학자의 자아에 대한 개념모형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1960년대에 유행했던 Coopersmith(1967)와 Piers-Harris(1969)의 모형은 자아개념의 측정에 있어서 여러 영역을 걸치는 문항, 예를들면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

족관계 내에서의 자아평가를 두루 포함하는 문항을 합산하여 자아개념을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의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자아개념의 다차원적인 조망이 있다. Marsh(1987)는 일곱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자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단일차원적 접근과 다차원적인 접근의 대안적 접근으로써 Rosenberg(1979)는 그의 자존감척도에서 자아의 모형을 양극화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은 일반적인 자존감, 혹은 한 인간으로써의 가치감을 가지며 자아의 여러 분리된 영역들은 서로 비교되고 상하위 구조를 갖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매우 복잡한 방식에 따라 조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존감평가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지, 자신에게 좋은 점이 많은지 등의 단일차원적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Rosenberg 척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자존감 수준의 단일 점수만을 산출하였고 이러한 전반적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세부영역들을 평가하지 않았다. Rosenberg의 자존감척도는 Coopersmith의 자존감 척도와 단일차원의 측정을 한다는 점은 같으나 척도의 문항내용에 있어서 Rosenberg는 총체적(전반적인)자존감의 본성을 측정하나 Coopersmith는 다양한 영역의 평가를 합산하여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아의 개념 모형과 측정방법에 있어서 단일차원적인 것과 다차원적인 것을 통합하려는 관점이 있다. 즉, 세부적인 영역들을 평가한데 부가하여 Rosenberg의 개념과 유사한 전반적인 자존감 또는 자아가치영역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Harter(1982)는 아동이 약 8세 경이 되면, 아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역량을 구분하며, 각 영역을 초월한 전반적인 자아가치까지 갖게된다고 하며, 역량지각의 다차원성과 위계성을 강조하였다. Stigler와 그의 동료들(1985)은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역량지각을 측정한 결과, 문화권, 인종을 초월하여 역량지각 개념의 유용성을 보였으며, Cauce(1987)도 저소득층의 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영역별 역량지각을 측정한 결과, 지각된 역량부문의 차이가 확인되어서 자아개념의 세부 영역적인 역량지각의 개념모형을 지지하였다.

즉, 자아개념, 자아존중, 자아가치, 역량지각 등의 개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속선상의 개념들로서 각각의 개념모형, 측정방법에 관한 접근이 상호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2. 모자간 애착

Bowlby(1958)에 의하면 영아는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해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인들에 대한 행동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근접성을 유지하려하며, 이러한 상태가 손상될 때 근접성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애착행동이라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을 애착이라고 하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2차적인 본능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장기적인 지나친 애착은 퇴행·고착과 같은 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Bowlby의 이론을 정교화한 Ainsworth(1973)는 애착은 퇴행, 고착과 같은 병리현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개체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주위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애착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과 다른 특정한 개체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시·공을 넘어서 지속된다고 보았다. 또한, Ainsworth는 영아의 애착과 애착행동을 구분하여, 애착행동이란 애착을 형성한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접촉을 하려는 행동이며 이러한 애착행동은 양육자로 하여금 영아를 보호하게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애착형성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아에 초점을 두어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는 지금까지 영아기이후의 아동에 대한 애착유형 분류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Main 등(1985)은 지금까지 구조화된 낯선상황에서의 영아의 비언어적 애착측정을 벗어나 애착행동을 Bowlby(1968)가 언급한 내적 작동모델과 관련시킨다면 영아뿐 아니라 보다 나이가 든 아동이나 성인의 애착측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애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감정이나 행동뿐 아니라 주의, 기억, 그리고 인

지를 조정하는 내적 작동모델과 결부시킨다면 안정 애착과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애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Main과 Cassidy(1988)는 Ainthworth의 낮선상황 실험절차를 수정하여 유아의 애착을 측정한 결과, 안정형, 불안 회피형, 불안 모순형, 불안 통제형 그리고 불안 비분류형으로 나누어 영아기 이후의 아동의 애착체계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3. 모자간 애착과 아동의 역량지각

양육자와 아동간의 애착의 질은 아동의 인지,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Main, Kaplan & Cassidy, 1985).

Hazen과 Durrett(1982)는 중류층 유아를 대상으로 12개월 때의 애착유형과 30-34개월 일때의 탐색 및 인지적 도해(cognitive mapping)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안정형 애착 유아가 더욱 탐색적이고 환경에 유능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나이 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Bus와 Ijzendoorn(1988)도 안정형 애착 아동들은 불안정형 애착 아동들보다 읽기 지시에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과제에 더 주의를 기울여 더 잘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애착의 질은 이와같이 아동의 지적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정서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영아기때 '낮선상황' 실험에서 안정형 애착을 보였던 유아가 불안정형 애착을 보였던 유아보다 더 많은 미소를 짓고, 또래와 정서적 공유를 한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 이와 유사하게 Sroufe(1983)는 유치원 유아들을 관찰한 결과, 안정형 애착 유아들이 불안정형 애착 유아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덜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더 역량이 있으며 친구도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안정형 애착 아동은 다른사람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참아내는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표시할 수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역량을 증진시킨다(Srouf, Schork, Frosso, Lawroski, & LaFreniere, 1984).

자아의 발달에 있어서도 Sroufe(1983)의 종단적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안정형 애착아가 불안정형 애착아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 또한, Cassidy(1988)의 연구에서도 안정형 애착아가 불안정형 애착아보다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량을 인지, 사회, 신체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양육자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 사회, 신체적 경험을 할 것이고 이는 자아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인지역량지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역량지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신체역량지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남의 B유치원과 S유치원 유아 40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대상아동은 만 6세로 남아 23명, 여아 17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부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많았으며 어머니는 비취업자가 많았다. 가족의 월수입은 200-300만원이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도	백분율
아동의 성	남	23	57.5
	여	17	42.5
아버지의 연령	20대	1	2.5
	30대	37	92.5
	40대	2	5
교육정도	중졸이하	2	5
	고졸	6	15
	대졸	26	65
	대학원	6	15
직업	생산노무직	2	5
	판매서비스직	6	15
	사무직	23	57.5
	관리직	4	10
	전문직	5	12.5
어머니 연령	20대	2	5
	30대	38	95
교육정도	중졸이하	4	10
	고졸	12	30
	대졸	22	55
	대학원	2	5
취업 유무	있음	4	10
	없음	36	90
월 수입	100만원미만	1	2.5
	100-150만원미만	9	22.5
	150-200만원미만	13	32.5
	200-300만원미만	19	47.5
	300만원이상	8	20

3. 측정도구

1) 역량지각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역량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역량지각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기초로하여 이주리(1994)가 수정한 유아의 역량지각 그림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역량지각과 같은 자아(self)와 관련된 변수의 측정에서는, 대상자가 완벽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기제를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이주리의 유아용 역량지각 그림척도는 유아의 애착유형에서 불안-회피형 유아가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사료된다(이주리, 1994 참고).

역량지각 척도는 언어·수리역량과 일반적인 학습 관련능력에 관련된 인지역량지각, 또래간의 인기도와 수용과 같은 사회관계와 사회기술에 관련된 사회역량지각과 실외놀이게임에 대한 선호도와 신체발달 수준에 대한 지각인 신체역량지각의 3개 요인으로, 각 요인별로 각각 6개씩 모두 18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크론바의 α 계수를 계산했고 $\alpha = .82$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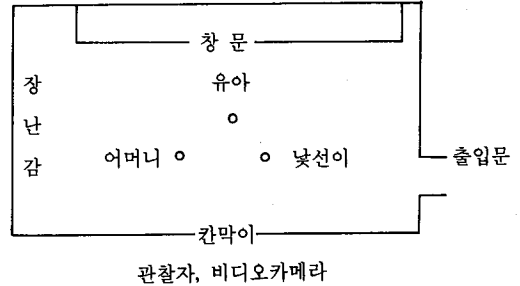
2) 모자간 애착

아동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Main과 Cassidy(1988)의 연구실험절차를 홍계옥(1994)이 수정하여 우리나라 유치원 유아에게 맞게 타당화한 애착유형을 그대로사용하였다. 애착분류체계는 안정체계, 불안-회피체계, 불안-모순체계, 불안-조정체계로 각 5점 척도로 이루어 졌다.

4. 연구절차

낮선 상황 실험절차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소개를 하는 실험상황1(5분),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불안을 감소시키는 실험상황2(10분), 어머니와 유아를 격리하는 실험상황3(30분, 이 때 유아에게 역량지각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장난감을 갖고 자유놀이를 하게한다), 유아가 어머니와 재결합하는 실험상황4(5분) 이며 전체 실험상황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여기서 어머니와의 격리 후 재결합시 유아가 보여주는 반응이 연구의 초점이다. 낮선 상황실험의 물리적 상황은 <그림 1>과 같다.

애착유형은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재결합 5분동안(실험상황4) 유아가 보여주는 행동을 기술하여 행동목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4개 하위행동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시 1점에서 5점까지 검사지를 작성했다. 애착유형의 분류는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의 점수체계를 중심으로 분류했다. 신뢰도는 두 분석자가 작성한 검사지의 일치도를 산정하였다. 관찰자간 일치도는 전체적으로 .73, 안정애착 척도는



<그림 1> 실험실의 물리적 상황

.80, 불안애착척도는 .77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애착유형분류에서는 .80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검증,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먼저 조사대상 유아의 애착행동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유형별 남녀간 백분율

애착유형	남		여		전체	
	N	%	N	%	N	%
안정애착형	12	52.2	11	64.7	23	57.5
불안-회피형	7	30.4	3	17.6	10	25
불안-조정형	3	13.1	1	5.9	4	10
불안-모순형	1	4.3	2	11.8	3	7.5
전 체	23	100	17	100	40	100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 유형은 안정애착형이 57.5%로서 가장 많았고, 불안애착형이 42.5%이었다. 불안애착형 중에서는 불안-회피형이 25%, 불안-조정형이 10%, 불안-모순형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6

세아를 대상으로한 Main 과 Cassidy(1988)와 Cohn (1990)의 연구보고와는 약간 다른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형, 불안-조정형, 불안-회피형, 불안-모순형의 순이었다. 이는 Ijzendoorn과 Kroonenberg (1998)가 애착유형이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다고 했듯이, 문화의 차이에 따라 애정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는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성별로는 평균점수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표 3> 애착유형별 남녀간 차이

구 분	통계치	전체	남	여	t
안정애착형	M	3.11	2.99	3.33	1.88n.s
	SD	1.20	1.09	1.21	
불안-회피형	M	2.33	2.48	2.13	1.53n.s
	SD	1.02	1.08	0.89	
불안-조정형	M	1.43	1.45	1.41	0.68n.s
	SD	0.82	0.90	0.74	
불안-모순형	M	1.32	1.34	1.30	0.50n.s
	SD	0.64	0.72	0.52	

n.s:non significant

1.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인지역량지각(연구문제 1)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인지역량지각 을 안정/불안정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고 각 애착측정변인과 유아의 인지역량지각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그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유아의 인지역량지각은 애착의 안정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형 애착아가 불안정형 애착아보다 자신의 인지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형 애착아가 자신의 인지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들(Cassidy, 1988; Srouf, 1983)과 일치한다.

또한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인지역

<표 4> 모자간 애착유형과 인지역량지각과의 비교

애착	인지역량지각 점수		t
	M	SD	
안정	3.03	0.54	2.22*
불안정	2.81	0.52	

* p<.05

<표 5> 모자간 애착측정 변인과 인지역량지각점수와의 상관관계

	애 착 변 인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조정	불안-모순
인지역량지각	.31*	-.25*	-.29*	-.17

* p<.05

량지각은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조정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 변인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불안회피, 불안조정변인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안정애착변인이 인지역량지각과의 상관성을 가장 높게 보여 유아가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가질 때 자신의 인지역량에도 자신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인지적 경험을 추구하며,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역량지각(연구문제 2)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역량지각 을 안정/불안정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고 각 애착측정변인과 유아의 사회역량지각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표 7>과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유아의 사회역량지각은 애착의 안정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형 애착아가 불안정형 애착아보다 자신의 사회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

〈표 6〉 모자간 애착유형과 사회역량지각과의 비교

애착	사회역량지각 점수		t
	M	SD	
안정	3.24	0.53	2.67*
불안정	3.01	0.48	

* p<.05

정형 애착아가 자신의 사회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들(Cassidy, 1988; Srouf, 1983)과 일치한다.

〈표 7〉 모자간 애착측정 변인과 사회역량지각점수와의 상관관계

	애 착 변 인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조정	불안-모순
사회역량지각	.34*	-.31*	-.26*	-.11

* p<.05

또한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역량지각은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조정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 변인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불안회피, 불안조정변인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안정애착변인이 사회역량지각과의 상관성을 가장 높게 보여 유아가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학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또래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자신의 사회역량에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신체역량 지각(연구문제 3)

모자간 애착과 유아의 신체역량지각을 안정/불안정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고 각 애착측정변인과 유아의 신체역량지각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표 9〉와 같다.

〈표 8〉 모자간 애착유형과 신체역량지각과의 비교

애착	신체역량지각 점수		t
	M	SD	
안정	3.06	0.51	1.92
불안정	3.03	0.48	

〈표 8〉에서와 같이 유아의 신체역량지각은 애착의 안정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애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Cassidy(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표 9〉 모자간 애착측정 변인과 신체역량지각점수와의 상관관계

	애 착 변 인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조정	불안-모순
신체역량지각	.19	-.08	-.12	-.11

또한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신체역량지각은 애착변인과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 안정애착형 유아는 어머니와 재결합할 때 어머니와의 따뜻하고 친밀한관계를 보여주었다. 유아는 자신과 애착인물인 어머니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서 자신이 결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된다는것을 느낀다. 따라서 수용적이고 언제나 반응적인 애착인물과의 안정된 내적 신뢰감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역량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적극성을 갖게된다고 할 수 있다.

불안-회피형 애착아는 어머니와 재결합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뿐 더러 어머니의 상호작용 주도

에 대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관계 회피적이었다. 이러한 불안-회피 반응에 대하여 Bowlby (1973)와 Ainsworth(1978)는 회피는 애착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처리를 방해하는 기능이라고 이론화 한 바 있다. 따라서 회피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써 간주될 수 있다. 애착유형과 자아와의 관계를 연구한 Cassidy(1986)는 유아와의 면접을 통해 유아의 자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는데, 불안-회피형유아가 안정형 유아보다 자신을 완벽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애착형 유아는 애착인물과의 안정된 애착을 통해 자신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수용된다는 신뢰감으로 자신의 결점도 자신있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어머니로부터 거부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회피형 유아는 자신의 결점이 더 큰 거부를 유발할 것을 두려워 하여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 방어적 반응으로 자아를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아지각 척도는 회피형유아가 좀 더 자신의 결점을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는 응답 체계를 갖춘 Harter식 응답체계를 사용하였으므로 Cassidy(1986)의 보고와는 다르게 불안-회피형 유아가 안정형 유아보다 자신의 역량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조정형 유아는 어머니에게 거부적인 반응이나 어머니를 일부러 기쁘게 해주려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 유형에 해당되는 유아는 별로 없었는데 이는 Solomon과 그의 동료들(1987)이 6세아의 애착유형과 현재 모자녀간의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불안-조정형 집단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 Main(1985)에 의하면 6세때 불안-조정형 애착아의 대부분은 영아기 때 비정형화된(disorganized/disoriented)유형에 속했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유아의 어머니는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자녀를 돌봐 유아가 세상에 대해 조직화하는 것을 돕지 못하고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폭력 충동을 조정할 수 있고 자신이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인물이 있다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없다. 또한 유아는 어머니를 오히려 돌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해 분노한다. 조정형에 속하는 유

아는 회피형에 속하는 유아와는 달리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Cassidy, 1986). 따라서 자신의 인지·사회역량도 낮게 평가한다고 생각된다.

불안-모순형 유아는 의존성등의 미숙한 행동과 동시에 적대감, 공포감, 불안감을 나타내는 경우로 애착유형 중 가장 적게 나타나 Cassidy(1986)의 연구와 일치한다. 불안-모순형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자아 평가에 있어서도 방어적이지 않지만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모자간 애착의 유형과 유아의 자아에 대한 지각과는 상관이 있음을 인지·사회영역에서 밝혔다. 즉 모자간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유아는 자신의 인지·사회역량을 높게 지각했다. 따라서 모자간 애착의 유형과 유아의 자아 표상간에는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애착유형의 개인적 차이를 애착과 관련된 자아의 내적 표상의 차이로 재개념화한 Main(1985)의 주장은 물론, 영아의 애착유형은 일관된 내적 조직을 반영한다는 Ainsworth(1978)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자아에 대한 지각은 애착의 질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그 영향의 방향은 알 수 없다. Bowlby 등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영향의 방향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즉,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다른 외생변수로 기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자간 애착과 아동의 자아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제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Bowlby가 주장하는 자아와 애착인물에 대한 내적 표상모델의 실행을 통한 애착발달의 지속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애착연구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 홍계옥(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 Ainsworth, M.D.(1983). Infant attachment and maternal care, *Dialogue*, 41-49.
- 4)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5) Bowlby, J.(1958). The nature of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6)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 7)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8)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 9)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 year 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10) Harter, S. (1978). Effectance motivation reconsidered toward a developmental model. *Human Development*, 21, 34-64.
- 11)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12)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13)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 Creca(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N.Y.: Academic Press.
- 14)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P. Mussen (ed), *Handbook of Psychology IV*, N.Y: John Wiley & Sons.
- 15) Hazen, N., & Durrett, M.E.(1982). Relationships of security of attachment to exploration and cognitive mapping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51-759.
- 16) Main, M.(1985). Adult mental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attachment. In M.Main(Chair), *Attachment: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17)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 18) Sroufe, L.A.(1983). Individual patterns of adapt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16,41-8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9) Sropfe, L.A.,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 Waters, E., Wippman, J., & Sroufe, L.A.(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Child Development*, 50, 821-829.
- 21) Wylie, R.(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Vol.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